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타난 차기체 필기의 특징

김채식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mittsso@hanmail.net

I. 머리말

II. 차기체 필기의 개념과 전개

III.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변증설의 함의

IV.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서술상의 특징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19세기 박물고증서인 『五洲衍文長箋散稿』의 서술방식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저자 五洲 李圭景(1788-1856)은 본관은 全州, 자는 伯揆, 호는 五洲·嘯雲·菊園이다. 조부는 李德懋(1741-1793)이고, 부친은 李光揆(1765-1817)인데, 저자의 집안은 대대로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으나, 저자의 대에 이르러 이마저도 끊어지고 말았다. 저자는 34세까지 서울에서 생활하였고, 이후 충청도 韓山과 公州를 거쳐 忠州의 德山에서 만년을 보냈다.

오주가 저술한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조선후기의 저술 중에서도 정보가 방대하면서 내용이 난해하기로 정평이 났다. 저자가 중년부터 저술을 시작하여 임종 직전까지 수정·보완하였으므로 19세기 초중반 조선의 학술 수준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한 자료이면서도 저자의 말과 인용문이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는 난삽한 문맥은 당혹감과 탄식을 자아내곤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필기의 범주에 속한다. 그 속에는 전통적인 필기, 잡록 형태의 문인적 취향의 글도 많고, 순수하게 자료만 인용한 구절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해진 주제에 따라 고급 학자들의 견해를 두루 조사·선록하거나 새로 발견한 자료를 유기적으로 재배치하여 한 편의 논문처럼 구성해놓았다. 그리하여 하나의 논제가 그간 전개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저자의 폭넓은 사유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도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복잡한 구성을 설명할 서술방식으로 ‘筭記體 筆記’를 주목하였다.¹⁾ 그러나 차기체 필기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범위가 명료하지 못하여 간혹 의심어린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차기체 필기는 筭記와 筆記가 결합되어 새로운 양식으로 성립한 것이다. 차기라는 문체는 조선시대에 경학 및 성리학 관련 저술에 이미 폭넓게 활용된 양식이다. 선현들의 저술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구절이나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을 선록하여 ‘○○筭記’, ‘○○筭錄’ 등의 이름을 붙여왔다.

1)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이 유구한 전통양식인 차기의 핵심은 選錄에 있다. 즉 방대한 저술이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선록되어 수용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수집된 이러한 비망기 형태의 1차 자료는 주제에 맞게 재배열되는데, 여기에서 전통적인 필기·잡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차기체 필기로 갈 것인가는 순전히 자료의 성격과 작자의 학문 태도에 달린 것이다. 차기의 가공 방식은 18-19세기의 폭발적인 서적의 증가와 유통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정보를 처리할 것인가라는 고심 끝에 차기와 필기가 결합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소략하나마 차기체 필기의 개념을 다시 논의하여 학계의 공식용어로 활용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차기체 필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여, 차기체 필기가 조선후기의 박물고증서, 유서, 백과전서 창작의 유효한 원동력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드러난 서술방식상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거칠게나마 정리하여 그간에 당혹스럽게 여겨온 의문에 대한 작은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차기체 필기의 개념과 전개

우리나라 한문학계에서는 최근에 18, 19세기 필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학술비평적 성격이 강한 자료를 설명할 논리로 차기체 필기를 주목하였다. 그런데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연구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차기체 필기는 필기라는 장르 안에 포괄되는 개념인데, 차기와 필기가 결합된 개념이다. 전통적인 필기와 차기체 필기가 다른 점과 차기체 필기가 대두되게 된 경과를 소략하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조선전기부터 활발히 창작된 필기는 雜錄, 札記, 日錄, 筆談, 隨筆, 漫錄 등으로 불리어지던 견문을 잡기한 기록류의 범칭이다. 서술체제도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소재 역시 정치, 역사, 경제 및 문화 전반, 자연현상, 인물 일화 등 온갖 영역에 미치고 있다. 필기는 문인학자의 서재에서 형성된 것일 뿐 아니라, 사대부의 생활의식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패설은 민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담항설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²⁾

필기는 매우 오랜 전통의 서술양식이다. 고급의 사적, 건문한 사실, 독서비망록 등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술하는 문인취향의 글쓰기가 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기가 포괄하는 개념은 지나치게 넓어서 詩·賦·論·策·碑誌 등의 고정된 문체에 속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필기 혹은 잡록으로 모아 처리하였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필기 종류에 札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거니와, 찰기는 바로 筭記와 같은 의미로서 필기의 전통 속에 차기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한어대사전』에는 札記는 독서하면서 뽑아 적은 要點이나 心得, 혹은 수필기사 등의 문자를 가리킨다고도 하고, 독서할 때의 心得과 體會를 기록한 것이라고도 하며, 그 예로 청나라 王筠의 『菴友臆說』에 “배워서 얻거나, 생각해서 얻은 것을 그때마다 札記하였다.”는 구절을 예로 들었다.³⁾ 요컨대 독서하다 얻은 요점이나 마음에 터득한 바를 뽑아서 수시로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나라 王士禛(1634-1711)의 『香祖筆記』에 붙인 청나라 宋肇의 서문에 차기의 성격을 이해할 단서가 보인다.

“관아에서 퇴근한 여가에 보면 (왕사정은) 지서를 하며 스스로 즐기는 데 쉬는 날이 없었다. 詩文을 짓는 외에 틈틈이 붓 가는 대로 써서 차기를 만들었는데, 經史에 통달하고 文獻을 드러내고자 하여 하나의 명칭과 사물일지라도 훗날 典故로 남기거나 法戒로 갖출 수 있는 것은 모두 적었다.”⁴⁾

왕사정의 『향조필기』는 청대의 필기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작으로, 조선에서도 필기의 모범으로 애독하였다. 宋肇이 이해한 바로는 붓 가는 대로 써서 筭記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經史에 통달하고 文獻을 드러내

2) 임형택 선생이 선성을 연 조선전기 필기에 대한 정의는 그 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졌다.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1984), 414-415쪽. 이후 임완혁은 이 논리를 확장하여 필기 전반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패설」, 『대동한문학』 24(2006); 임완혁,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 『동방한문학』 39(2009). 진재교는 필기에 대한 기왕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차기체 필기가 지식의 생성과 유통, 지식의 분류와 재배치와 관련이 깊은 측면을 규명하였다.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6(2005); 진재교,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9(2007), 388쪽.

3) 『漢語大辭典』, 「札記」: 1. 讀書時摘記的要點心得或隨筆記事等文字. 2. 指記錄讀書時的心得體會. 清王筠『菴友臆說』“或學而有得, 或思而有得, 輒劄記之.”

4) 清 宋肇, 「香祖筆記序」, “公退之暇, 輒見其著書自娛, 殆無虛日. 聲詩古文而外, 間隨筆爲劄記, 要必貫串經史, 表章文獻, 即一名一物, 異日可垂典故備法戒者, 乃錄之.”

는 것은 물론, 하나의 사소한 명칭과 사물도 후대의 전고나 경계가 된다면 모두 적을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본래 필기의 기본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면서도 그 서술방식은 隨筆을 통한 筭記의 작성이 핵심임을 지적한 것이다.

필기에서 筭記를 적극 활용한 것은 청대 학문의 특징이기도 하다. 양계초는 일찍이 청대 학술의 방법론을 札記(筭記)의 활용에서 찾았다. 찰기의 성질은 본래 著書가 아니라 저서를 하기 위한 자료를 비축함에 불과하며, 청나라 학자들이 각지 札記冊子를 가지고 매번 독서를 하다가 마음으로 터득한 것을 기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염무가 아침 저녁으로 송독하고 반복하여 1년에 겨우 10여 조목씩 얻어 『日知錄』을 완성하였음을 그 사례로 제시하였다.⁵⁾

양계초가 지적한 札記冊子는 독서비망록의 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저서의 자료에 불과함에도 경솔히 저술하지 않았던 청나라 학자들의 자세는 차기체 필기의 성격이 학술적 담론을 위주로 하였음을 시사한다.

고염무가 아침저녁으로 송독하고 반복 궁리하여 1년에 10여 조목을 얻었다는 찰기는 그냥 선록하기만 한 1차 자료가 아니라 재가공된 찰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가 훗날 고염무의 『日知錄』과 같은 거질의 저술로 완성되었던 바, 우리는 이를 차기체 필기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자료만 모은다고 차기체 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엄정한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벤자민 엘먼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라는 저서에서 양계초의 차기에 대한 지적에 촉발되어 중국의 학술이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논증하여 널리 반향을 일으켰다.⁶⁾

이 차기 개념은 최근 한국의 학계에 수용되어 18, 19세기의 필기를 설명하는 논리로 대두되었다. 즉 18, 19세기의 지식체계가 방대해지는데 핵심 역할을 한 요인을 차기체 필기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후기 들어 전통적인 문인취향의 필기와는 다른 새로운 견문이나 학술정보를

5) 『清代學術概論』 권17, “大抵當時好學之士, 每人必置一‘劄記冊子’, 每讀書有心得則記焉. 蓋清學祖顧炎武, 而炎武精神傳於後者在其『日知錄』. 其自述曰, ‘所著『日知錄』三十餘卷, 平生之志與業皆在其中.’(『亭林文集』, 「與友人論門人書」) 又曰, ‘承問『日知錄』又成幾卷, 而某自別來一載, 早夜誦讀, 反復尋覓, 僅得十餘條. [...] (同『與人書』十) 其成之難而視之重也如此. 推原劄記之性質, 本非著書, 不過儲著書之資料. 然清儒最戒輕率著書, 非得有極滿意之資料, 不肯泐爲定本, 故往往有終其身預備資料中者. [...]”

6) 벤자민 엘먼 저, 양휘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예문서원, 2004), 353-357쪽.

재구성하여 학술비평의 분위기가 강한 필기의 현상을 차기체 필기로 규정하였다.⁷⁾

차기체 필기가 전 시기의 필기와 다른 점은 다양한 정보를 집적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며, 기존의 지식을 정리·분류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차기체 필기는 조선후기 지식·문화의 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그 배후에는 청으로부터 문헌의 다량 수입과 유통, 다양한 장서를 소장한 장서가들의 출현, 그리고 문헌과 지식정보를 상호교류하는 문화적 상황이 있다. 차기체 필기는 조선후기 백과전서의 총서류와 같은 서적을 탄생시킨 원동력이며, 특정한 문제를 바라보는 비판적 독서와 시각, 지식문제를 다루는 태도, 그것을 비평하는 자세 등이 매우 학술적이며, 기왕의 지식을 다시 비평하여 논쟁적인 글쓰기를 보여주기에까지 한다.⁸⁾

진재교는 조선후기 차기체 필기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기존의 사유방식이나 이념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추구하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② 차기체 필기는 체계적인 저술이 아닌 자유분방한 기술로 지식의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단편적 기록을 자유자재로 기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③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는 독서를 통한 다양한 지식정보의 습득으로 새롭게 생성되고 증대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분류학의 발생,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④ 저자의 폭넓은 독서체험과 노년의 학예적 성취에 기반을 두고 기술된다.

⑤ 당대 학술사의 쟁점사안이나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 학술적 공과를 비평하는 경우가 많아 전대에 비해 학술적 성격이 강하다.

⑥ 명물고증학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차기체 필기의 개념이 대두됨으로써 조선후기 독특한 필기들의 성격이 명료해진 측면이 있다. 예컨대 洪翰周(1798-1868)의 『智水拈筆』, 洪奭周(1774-1842)의 『鶴岡散筆』,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전 시기의 필기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학술담론을 위주로 한 필기류의 성격이

7) 진재교는 조선후기 필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학술담론 위주의 특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로 차기체 필기를 제기하였다. 진재교,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9(2007).

8) 진재교, 위의 논문(2007), 396-409쪽에서 요약 인용.

차기체 필기로 규명된 것이다.

차기체 필기는 방대한 정보의 양과 고증·변증의 학문 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차기체 필기와 닮은 단편들이 약간 있을지라도 쉽게 차기체 필기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전편을 관류하는 서술방식의 대표적 특징으로 차기체 필기가 드러나야만 한다. 그리고 견문을 주로 기록한 차기의 경우 가담항설을 듣고 기록한 패설과의 차이점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측면도 있다.

본고는 현재까지 제기된 서술방식에서 차기체 필기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안에는 다양한 서술방식이 공존하기는 하나, 다양한 서적을 방대하게 인용하여 종횡으로 비평과 논증을 전개한 점이 가장 차기체 필기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선후기의 저술 중에서 차기체 필기로 꼽는 것은 유득공(1749-1807)의 『古芸堂筆記』, 서유구의 『金華畊讀記』⁹⁾, 홍한주의 『지수염필』, 홍석주의 『학강산필』 등 매우 많다.

이러한 서적은 사대부의 문인취향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고, 다양한 서적에서 새로운 지식을 방대하게 초록하여 학문적 논쟁거리로 삼는 태도가 강하다. 문인의 고상한 글쓰기에서 학술정보의 수용과 비평이라는 데로 중심이 이동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수염필』, 『학강산필』과 같은 서적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보이는 논증·변증의 비평적 글쓰기와 비교해보면 아직 전통 필기의 분위기도 많이 남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沈鏗(1722-1784)의 『松泉筆譚』과 같은 서적은 차기체 필기의 요소도 적지 않으나, 아직도 문인취향의 자세가 강하고 견문을 채록하는 데 주력한 것을 고려한다면 필기와 차기체 필기의 중간에 선 저술이라 생각한다. 추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통 필기와 차기체 필기의 구분이 차차 명료해지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차기체 필기에 대한 기왕의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차기체 필기를 구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차기체 필기의 성격을 세분화해야 한다.

차기체 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 가지 고려할

9) 『金華畊讀記』는 최근 조창록에 의해 발굴되었다. 총 8권이었던 것이 현재는 7권까지만 전해지고 있다. 史書, 律呂, 書籍, 詩話, 藏書, 名物 등에 관한 내용이 성격이 유사한 글들을 모아 권별로 편차하였다.

사항이 있다. 필기의 형식이 다양한 내용과 서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 성격의 규명에 많은 고심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차기체 필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왕에 차기체 필기가 새로운 서술방식으로 논의되는 마당에 그 세부 성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차기체 필기의 성격에 따라 견문차기, 독서차기, 고증차기로 세분화하기를 제안한다.

독서차기는 저자가 독서하는 중에 지식정보를 초록하여 선집한 필기를 가리키는데 鄭元容(1783-1873)의 『鯖齋錄』¹⁰⁾이 두드러진 경우이다.

견문차기는 저자가 견문한 바를 수집·채록한 경우이다. 저자가 벼슬하는 도중에 수집한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경향 간의 사소한 생활정보까지 포함한다. 이유원의 『林下筆記』와 정원용의 『袖香編』¹¹⁾이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견문차기는 패설과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저자의 상상력과 허구를 최대한 배제한 당대의 최신 견문이어야 한다.

고증차기는 하나의 논점에 대해 변증과 고증에 주력한 경우로 학술비평의 취향이 강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대부분의 편이 이런 경우이다.

하나의 서종 내에서도 이 세 가지 성격이 두루 섞인 것이 대부분이긴 하나, 전편의 서술방식을 통계화하여 어떤 요소가 주종을 이루느냐에 따라 조심스럽게 세부 성격을 규정해주는 것은 의미가 클 것이고, 차기체 필기의 성격이 명료해지리라 생각한다.

둘째, 차기체 필기가 주된 서술방식이어야 한다.

차기체 필기를 활용한 서적은 많다. 『송천필담』과 같은 거질의 저술에도 차기체 필기에 속할 편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尹愔의 『無名子集』에 들어있는 「井上閒話」나 「峽裏閒話」의 많은 편들도 차기체 필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서적은 아직은 자료의 인용이 주변의 견문에 의지하거나 작자의 문예적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되는 경향이 있어 전통 필기의 문인취향의 기반에 굳건히 서 있으므로 선뜻 차기체 필기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기체 필기가 전편을 관류하는 두드러진 서술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18, 19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윤기 같은 문인도 차기체 필기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차기체

10) 鄭元容(1783-1873)의 『鯖齋錄』은 저자의 논평을 배제한 채 거의 중국의 사실을 조목별로 선록 발췌해 모은 것이다.

11) 정원용의 『袖香編』은 우리나라의 제도, 풍속, 일화 등을 정원용 자신이 직접 문자화했다는 점에서 筭記에 속한다.

필기가 광범하게 활용된 정황을 읽어낼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정보의 수용 및 비평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18, 19세기의 차기체 필기의 대부분이 명·청 서적의 유통에 촉발된 새로운 지식의 수용에 초점이 있다. 이것이 조선후기에 새로이 등장한 문화현상임을 염두에 둔다면 생활 주변의 고상한 건문보다는 새로운 학술정보의 수용에 비중이 높아야 한다.

필기의 성격이 워낙 다양하므로 장르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패설과의 혼동을 막으려면 서적을 통한 자료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필기가 지닌 속성 중에 사실성, 객관성 추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¹²⁾ 차기체 필기에서 핵심이 바로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고, 건문의 수록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러한 필기와 패설의 속성을 차별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의 수용 및 이에 대한 비평에 중심이 놓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문인취향의 고상한 문예비평보다는 지식인의 치열한 정보수집·비평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국고문헌이나 『임원경제지』와 같은 유서도 차기체를 활용한 저술이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학술논쟁이 저술 목적이 아니고, 『임원경제지』는 이미 類書라는 체제로 정립되었으므로 차기체 필기에 얼마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梅泉野錄』이 건문을 수록하여 차기방식을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저자의 정치평론적 성격이 강해 野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차기체 필기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III.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변증설의 함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모두 60권으로 1,416편의 ‘辨證說’로 구성되어 있다. 변증이란 고증과 상통하는 단어로써 청대 학술과의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양계초는 청나라 학자들의 治學 방법으로 귀납법과 과학정신을 꼽았다.

12)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패설」, 『대동한문학』 24(2006); 임완혁,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 『동방한문학』 39(2009).

- ① 사물을 관찰하여 가치를 포착한다.
- ② 同類, 혹은 연관이 있는 것을 나열·비교한다.
- ③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학설을 세운다.
- ④ 널리 증거를 찾아 증명하되 유력한 반증이 나오면 폐기한다.¹³⁾

오주가 활용한 ‘辨證說’은 양계초가 말한 것처럼 귀납적·과학적 분석과정을 따르고 있다. 이전 시기의 필기가 문인학자의 서재에서 사대부의 생활에 관련된 일화나 시화를 중심으로 붓 가는 대로 서술하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博學多識을 기반으로 폭넓은 독서와 사유의 세계를 변증이란 수단을 통해 재조합하여 지식정보를 확장하고 가공한 것이다.

조선에서 변증이란 제목을 쓴 저술로는 宋時烈的 「近思錄誤本辨證」(『宋子大全』 권130, 雜著), 南塘 韓元震의 「氣質之性辨證」과 「人物之性辨證」(『南塘先生文集』 권29, 雜著), 安鼎福의 「怪說辨證」(『東史綱目 附』 卷上, 中), 南九萬의 「東史辨證」(『藥泉集』 권29, 雜著), 이덕무의 「經書人物辨證」(『靑莊館全書』 권59, 蟲葉記 六)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들은 차기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유학자와 실학자를 막론하고 난해처에 대해 다양한 전고를 인용하여 사실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변증이란 형식이 유용한 때문일 것이다. 그간 경전이나 주자학의 변론에 활용되던 차기 형식의 변증이 조선후기로 들어 신서적의 정보를 수용하거나, 怪說이나 東國事實, 人物記事 등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변증은 오주의 독창이 아닐지라도 1,416편 전부를 ‘辨證說’로 구성한 것은 오주의 발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오주가 활용한 변증설은 차기체 필기가 지닌 학술중심의 비평·고증 기능을 잘 보여준다.

무릇 사물을 변증하는 것이 眞知的見이 아니라면 그 변증이란 街譚巷說에 지나지 않으므로 굳이는 취하지 않는다. 내가 사물에 대하여 옛일을 끌어와(援古證今) 지금을 증명함에 있어서 매양 그 原委(시말)를 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들은 것이 적고 본 것이 좁으므로 비록 俚諺이나 野談이라도 수집하여 나열하지 않음이 없었다.

13) 『清代學術概論』 권17, “清儒之治學, 純用歸納法, 純用科學精神, 此法此精神, 果用何種程序始能表現耶. 第一步, 必先留心觀察事物, 覷出某點某點有應特別注意之價值. 第二步, 既注意於一事項, 則凡與此事項同類者或相關者, 皆羅列比較以研究之. 第三步, 比較研究的結果, 立出自己一種意見. 第四步, 根據此意見, 更從正面反面反面博求證據, 證據備則泐爲定說, 遇有力之反證則棄之. 凡今世一切科學之成立, 皆循此步驟, 而清考證家之每立一說, 亦必循此步驟也.”

간혹 한 조각의 무늬라도 엿보면 홀로 기뻐하면서 기재하기를 그치지 않아 전혀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니, 대양 大方家들의 기용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걱정하지 않았다. 심하다, 변증을 좋아하는 性癖이여!¹⁴⁾

眞知的見이 아니라면 변증이 街譚巷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위의 언급은 필기가 사실에 기반을 둔 장르이고, 창작자가 아닌 기록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사실의 재현과 전달에 무게를 둔다는 지적¹⁵⁾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다. 즉 필기가 지닌 학술적 성격이 변질되어 가담항설을 채록한 稗說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자잘한 지식 편린들을 모아서 재배열하여 거대한 편질을 만들었다. 사물에 대해 援古證今의 자세를 견지하고 시말을 밝히고자 한 것이 오주의 변증설이 지닌 학술적 성격인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매우 건조하고 논리적이면서 간혹 난삽하게까지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학술적 비평과 고증의 서술 때문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변증설’에는 다양한 서술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인위적인 분류일지 모르나 구별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저자의 견해를 서술하는 저술 방식 15% 내외
- ② 자료를 인용하여 나열하는 순수 인용 방식 15% 내외
- ③ 자료 인용과 저자의 논평이 복합된 방식 70% 내외¹⁶⁾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저자의 견해를 주로 서술한 글과 순수 인용이 각각 15% 정도이고, 인용과 논평의 복합변증 방식이 70%에 이른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자료만 인용한 글과 인용과 서술을 복합한 형식을

14) 「燕衛石辨證說」, “凡事物之辨證者, 若非眞知的見, 則其所辨者, 無非街譚巷說, 故君子不取也。予於事物, 援古證今, 每欲發明其原委。所聞者謬, 所見者寡, 故雖俚諺野談, 罔不搜羅。或有一斑之窺, 則暖姝之紀載不已, 了無裁度, 每受大方之譏笑, 而不自恤焉。甚矣, 其好辨之癖也。” 辨證說이란 제목이 붙은 편은 모두 『오주연문장전산고』의 편명이므로 이하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15) 필기가 지닌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김준형, 「사건의 기록과 한문학 -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2009); 임완혁,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 『동방한문학』, 39(2009).

16) 『오주연문장전산고』, 「天地篇」 224편의 변증설을 임의대로 분류한 것이다. 저자의 의견이 90% 이상이면 ①, 저자의 의견과 인용이 절반씩 복합되어 있을 경우 ②, 인용문이 90% 이상이면 ③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①의 경우가 32편, ②의 경우가 158편, ③의 경우가 34편이었다. 김체식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합치면 85%에 달하여, 자료인용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기한 차기체 필기의 세부 분류에 의거하면 ①에는 건문차기의 내용이 많고, ②는 독서차기에 속하며, ③은 고증차기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별하는 이유는 차기체 필기가 전통적인 필기와 구별되는 지점이 학술적 성격의 유무에 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필기·잡록을 차기체 필기로 규정하려면 학술적 인용의 성격이 전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차기체 서술방식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술방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차기체 필기의 한 예로 「裝潢·裝池辨證說」을 보면 오주가 자료를 인용하여 중형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논지를 증명하는 고증차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裝潢·裝池辨證說」

今書帖表褙，謂之裝潢·裝池，然但隨口而言，實不能辨其名狀。①馬大年考唐祕書省，有裝潢匠六人，恐是今之表褙，而不得潢義。姚亮『叢話』，『釋名』，染紙也。汜勝之『齊民要術』，有裝潢紙法，浸藥汁入潢，凡潢紙減白便是。若染黃，則年久色暗矣。後有雌黃治書法云，潢訛治者，使寫而後入黃，辟蠹也。王弼州以爲吾因悟雌黃改誤，亦以紙色黃，故用雌黃塗掩其墨，而後用筆耳。今人呼表褙爲裝潢，蓋爲馬大年所誤，而好奇之士，至於白紙紙字上塗黃，亦誤也。唐人用硬黃紙，臨右軍書，亦以右軍名蹟，皆以爲收藏家潢過，故書黃紙以效之。楊用修謂古裝裱卷軸引首，假以綾貼褙曰罨，唐人謂之玉池，故裱褙曰裝池。愚嘗言裝潢雖技，歷考傳記，亦非易看者。『唐·藝文志』，載四庫裝軸之法，極其瓌緻。『六典』載崇文館有裝潢匠五人，其裝裱裁製，各有尺度，印識標題，咸有儀式。宋范曄始能裝背，代各有名手。宋周密『癸辛雜識』，詳其名物度數。米芾『畫史』，亦有所論。清周嘉胄有『裝潢志』，錢塘詹事江祁『銷夏錄』，皆裝池家良史也。辨釋名物，然後可許書畫掌故。②米南宮海岳書史，隋唐藏書，皆金題玉躑，錦罨繡褙。金題，押頭也，玉躑，軸心也，罨，卷首帖綾，又謂之玉池，又謂之罨。有毬路錦罨，有樓臺錦罨，有樺蒲錦罨，有引首二色者曰雙引首，標外加竹界而打擲其覆首曰標褙法，帖譜系曰大觀帖，用皁鸞鵲錦標褙是也。卷之裱簽曰檢，又曰排。『漢書·武帝紀』金泥玉檢注，檢，一曰燕尾，今世書帖簽，『漢·公孫瓚傳』，皁囊施檢注。今俗謂之排。古裝裱卷軸引首，後以綾貼褙曰罨，唐人謂之玉池，故裱褙曰裝池也。職掌裝潢，收藏書畫者，所當識者也。裝池者，復有一證，左太沖嬌女詩，③衣被皆重池，宋子京詩曰，曉日侵簾壓，春風到被池。『侯鯖錄』以爲今人被頭，別施皁爲緣者，爲被池。我東所謂東正，乃網也。凡屏簇四面緣飾曰網裝，卽亦被池之謂也，書帖裝池者，與此一義也。

현대의 표구를 전통시대에는 裝潢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오주는 이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즉 장황이란 본래 종이를 황벽나무를 끓인 물에 담가 누렇게 염색하여 좀벌레의 피해를 막으려던 것인데, 표구를 의미하게 된 것은 馬大年의 오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테두리를 둘러 장식하는 罽은 당나라 때는 玉池라고 불렀기에 裱褙(표구)를 일컫는 말로 裝池가 더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오주는 장황을 맡은 관원과 書畫를 수장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편을 저술하였다. 고대로부터의 표구의 내력과 작품을 표구할 때 장식하는 檢(燕尾, 簽)과 같은 각부의 명칭, 左太沖의 「嬌女詩」와 같은 문학작품, 작품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테두리를 우리말로 동정(東正)이라 한다고 하여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상세히 논증하였다.

이 짧은 편폭에 등장하는 주된 인용문이 세 곳이고, 인용서목만 해도 『弇州四部稿』, 『叢話』, 『釋名』, 『齊民要術』, 『唐·藝文志』, 『六典』, 『癸辛雜識』, 『畫史』, 『裝潢志』, 『銷夏錄』, 『漢書·武帝紀』, 『漢·公孫瓚傳』, 『侯鯖錄』, 『丹鉛總錄』, 『芝峯類說』 등 15종에 달한다.

①은 王世貞의 『弇州四部稿 卷170·宛委餘編十五』, ②는 楊慎의 『丹鉛總錄 卷8·金題玉躑』, ③은 李睟光的 『芝峯類說 卷10·古詩』에서 각각 인용하였다.

이 중에서 ①의 ‘王弇州以爲’는 오주가 추가한 말로 원전에는 없다. 오주는 王世貞의 글을 인용하면서 독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王弇州以爲”를 넣어 자신의 말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용문도 아니고 저자의 말도 아닌 애매한 구절이 되고 말았고, 서술자의 일관된 호흡이 매우 약화되고 말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이처럼 무수한 인용문이 등장하고 어디서부터가 인용인지 서술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오주가 援古證今의 자세를 견지하여 널리 옛날의 사적에서 자료를 끌어와 현실에 만연된 오해와 왜곡을 변증하려는 자세가 엿보이면서도, 방대한 자료의 인용에서 초래된 서술호흡의 약화 및 단절은 독자를 당혹케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여타의 필기보다 긴 구절을 인용하여 여러 곳에 배치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인용구절이 길어짐으로써 인용자료가 가진 호흡을 모두 제어하지 못한 듯하다. 여타 차기체 필기에서도 자료의 방대한 인용에 따라 서술자의 호흡이 전 시기의 필기보다 약화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었으면 한다.

필자는 가끔 『오주연문장전산고』는 필기의 단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하늘이 오주에게 더 많은 수명을 주었다면 어떤 형태로 정리하였을까 자문하곤 한다.¹⁷⁾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임원경제지』와 같은 동시대의 결과물에 비하면 정리되지 않은 매우 난잡한 원고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주의 저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임원경제지』와 같은 유서는 차기자료 → 차기체 필기 → 유서의 단계를 충실히 거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자료에서 평소 초록·수집한 1차 차기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가공하여 차기체 필기를 다수 만들었을 것인데 『金華畹讀記』와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¹⁸⁾ 실제 『금화경독기』는 『임원경제지』의 대본으로 활용되어 성격에 맞는 곳으로 각기 흠어져 수용되었다. 차기체 필기가 類書로 변화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임원경제지』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금화경독기』의 아래 단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오주연문장전산고』는 『금화경독기』처럼 자료의 성격별로 권차를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유서를 편찬하려고 지어진 책이 아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辨證說’이란 제목에서 보듯이 고증과 변증을 목적으로 지어진 독립 저술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주가 더 살았더라도 『임원경제지』와 같은 유서로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차만 재배열한 것으로도 완성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완성고에 거의 근접한 저술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오주의 저술 중에 차기자료에 근접한 자료로는 「騷壇千金訣」,¹⁹⁾

17) 1910년대에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발견되었을 당시 전혀 분류되지 않고 총 60권에 적당한 분량으로 묶여 미완성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볼 수 있는 정연한 체계는 『성호사설』의 예에 따라 현대에 재분류한 것이다.

18) 『금화경독기』는 최근 조창록에 의해 발굴되었다.(「楓石 徐有渠의 『金華畹讀記』」, 『한국실학연구』 19, 2010) 총8권이었던 것이 현재는 7권까지만 전해지고 있다. 史書, 律呂, 書籍, 詩話, 藏書, 名物 등에 관한 내용을 성격이 유사한 글들끼리 모아 권별로 편차하였다.

19) 안대회, 「騷壇千金訣 解題」(『溯上古典研究』 4, 1991)에 따르면, 이 책은 이덕무가 중국의 『詩人玉屑』, 『詩法源流』 등 시문 비평문을 초록하고 이규경이 편집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歐邏鐵絲琴字譜』²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水車, 輪船, 수레, 도량형 등 각종 기물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실었다는 「李家圖書約」, 救荒에 관한 기록을 모은 「普濟奇書」, 전염병의 발병과 증상 및 치료법을 담은 『霍痧會要』, 인삼의 파종과 재배에 관한 기록인 「家蓂牒」 등도 차기자료이면서 유서의 성격을 띠는 저술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서의 성격을 명확히 띤 저술로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五洲書種博物攷辨』 3권이 있는데, 1834년 9월경에 저술되었다.²¹⁾ 광물의 종류와 성질, 제련법 등에 대해 사전식으로 정리해놓은 책으로 『임원경 제지』와 같은 성격의 저술이긴 하나 규모가 매우 작다.

이를 종합하면 오주는 소규모의 유서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저작하는 동시에 학술적 고증과 변증을 목적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저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저술 단계에서 거의 완성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고, 차후의 작업으로 『오주서중박물고변』과 같은 전문적인 類書를 다양하게 편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IV.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서술상의 특징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지닌 다양한 면모를 짧은 원고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그간 파악한 독특한 성격을 조목별로 서술하여 이 저술이 지닌 특징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1. 지식정보의 구조화

차기체 필기는 하나의 정보가 수집되어 차기로 정착되고 이것이 다시 가공되어 차기체 필기로 정착되며, 최후에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 유서·백과전서·국고문헌 등으로 각기 정착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개별의 사실이 선후 연관을 맺어 유기적 정보로 바뀌고, 다시 일관된

20) 규장각도서, 1책 21장. 서양금의 제작방식과 연주악보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이규경이 번역하고 그의 아우인 李圭達(字 叔璋)이 교정하였다. 송지원, 「구라철사금자보」(가람 古787-Y55g) 해제 참고.

21) 「五洲書種博物考辨序」, “[...] 大東龍飛甲午菊月戊子, 五洲居士.”

흐름 속에 위치하여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하게 된다.

앞서 「裝潢·裝池辨證說」에서 보았듯이 오주는 각종 서적에서 뽑은 작은 정보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논문으로 환골탈태시켰다. 오주의 학술적·논쟁적 글쓰기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러한 지식정보의 재배치 및 구조화가 차기체 필기의 특징인 것이다.

이렇게 새로 구성된 작은 편들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종류별, 권별로 나누어 새로이 필기로 정착하기도 하고, 門目으로 세분화시켜 類書로 편찬되기도 한다. 유서와 백과전서의 편찬에 차기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임을 반증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다른 필기자료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자료의 복합적인 구성이다. 다시 말해 한두 가지 자료를 곁들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문인취향의 필기와는 달리, 방대한 자료를 중흥으로 섞어 자료 내용만으로도 맥(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자료가 가진 함의 자체가 작가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편의 변증설에 인용된 자료가 적게는 몇 종에서 많게는 수십 종에 이르는 장편도 적지 않다.

2. 고증과 변증을 통한 학술담론의 활성화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자료의 재배열과 고증에 치중함으로써 자료의 정리라는 측면보다는 논쟁의 심화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앞서 간략히 보았듯이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임원경제지』나 『松南雜識』와 같은 일관된 체제로 분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오주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저술한 목적이 자료의 정리보다는 논증과 변증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오주는 방대한 명·청의 서적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문면에 드러난 인용서적만 해도 한국·중국·일본·한역서학서를 합쳐 대략 660여 종이 된다.²²⁾ 『임원경제지』가 800여 종의 서적을 인용하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22) 이것은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의 「校勘記 典據」의 현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詩家點燈』에 인용된 『花底拾遺』(明 黎遂球), 『別裁集』(清 沈德潛), 『宛委餘編』(明 王世貞) 등 누락된 도서가 매우 많고, 施永圖의 『心略·水火攻編』은 『오주서중』에 거의 轉載되어 있는데도 인용서목에 누락되어 있다.

적어 보이지만, 고증과 변증을 통한 학술담론의 전개에서는 『오주연문장전산고』가 훨씬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³⁾ 이는 조선의 어느 저작과 비교하여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논쟁적 글쓰기 방식을 여실히 증명한다.

3. 필기의 장르 확장

『오주연문장전산고』가 필기인가 백과전서인가 유서인가 등에 대한 의문에 필자는 ‘박물고증서’ 혹은 ‘명물고증서’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²⁴⁾ 그리고 그 서술방식으로 차기체 필기로 주목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필기의 장르가 외연을 넓혀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차기체 필기는 이질적인 장르가 아니고 명·청 서적을 통해 수용된 방대한 자료에 촉발되어 새롭게 주목된 장르이다. 전통 필기의 장점과 창조 고증학의 고증방식이 두루 어우러지면서 차기체 필기의 독특한 서술방식이 탄생된 측면을 고려한다면, 차기체 필기는 전통 필기의 장르가 다변화되고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기잡록 위주의 서술에서 비평·변증의 성격이 강화되어 학술 지향을 보인다.

필자가 필기의 장르 확장으로 차기체 필기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술의 전개 단계에서 차기체 필기가 근대의 학문 전개방법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거칠게 표현한다면 수필에서 논문으로 서술방식이 변화되었다고 하겠으며, 양적인 자료의 확대가 필기형식의 질적인 변환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기록을 통한 경세의식의 실천

沈鏞(1722-1784)는 견문과 기록을 통해 『송천필담』이란 거질의 필기를 완성하였고, 서유구(1764-1845)는 1827년에 완성한 『임원경제지』를 통해 사대부의 은거와 임원경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

23) 인용서적은 총서와 필기에서 재인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원전을 모두 보고 인용한 것은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 김채식의 박사학위논문(2008) 105쪽.

내었다. 이규경(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서 고급의 사실과 왜곡을 변증을 통해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趙在三(1808-1866)은 『松南雜識』에서 조선의 현재의 태평한 문물을 빠짐없이 기록하려 노력하여 거질의 유서를 완성하였다.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저술들을 필자는 박학이라는 흐름으로 통합하여 이해하였다. 19세기가 17, 18세기 실학의 성과를 이어받아 박학으로 開花한 시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위에 나열한 인사들은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진 사람이 대부분이며 순조 대의 세도정권이 시작되고부터는 아예 벼슬에 대한 의식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한미한 집안이 되곤 하였다. 이렇게 권력의 핵심에서 낙오된 지식인 계층에서 거질의 유서와 백과전서류의 서적이 대다수 이루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실학시대의 경세의식이 박학시대의 지적 호기심으로 발현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경세의식에서 학술취향으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서적이 序文에서 한가할 때 기록하여 심심파적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자질구레한 일을 기록하였다고 겸양을 하나, 속으로는 후대에 활용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심재는 고급의 사변과 선악의 권징에서 명물도수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사항을 붓 가는 대로 썼으나, 내심 후세의 누군가가 선택해주기를 바랬고²⁵⁾, 서유구는 일찍이 경제학에 종사하다가 나중에는 실용으로서의 農學을 선택하였다고 토로하였다.²⁶⁾ 오주는 “지금 변증에 붙인 것은 후학들이 取捨할 거리로 삼도록 남기는 것이다.”²⁷⁾라고 하여 자신의 저술이 호기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후세에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울러 “荒政에 朝野의 구분이 있는데, 지금 변증하는 것은 草野에서 救荒하는 계책이다.”²⁸⁾라고 하여 조정이든 재야이든 처지에 맞게 救荒할 수 있음을 확고히 인식하였다.

이렇듯 차기체 필기를 통해 저술된 서적들은 지식인의 호기심과 기록에 대한 확고한 가치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단순히 지적

25) 「松泉筆譚 自序」.

26) 徐有桀, 「杏蒲志序」.

27) 「朱子晚年定論辨證說」, “然今附於辨證者, 俾後學有所取捨.”

28) 「山野荒政辨證說」, “荒政亦有朝野, 今所辨證者, 草野救荒之策也, 若當天人之厄會, 赤地千里, 野無片青, 則人將盡劉, 何暇論其轉壑之可拯, 餓孍之可濟, 雖然, 古之仁人爲民之心, 於『救荒本草』, 足可見矣, 謹撮其要, 臚列左方, 余前有『普濟奇書』, 又有辟穀·禦寒等辨證說, 略及救荒之術, 然『普濟書』, 以思邈『千金方』嚙津服水法及服六天氣法爲首, 『辟穀辨證』, 以時珍隱民濟饑辟穀仙方爲先, [...]”

호기심을 넘어서 기록과 저술이 동시대 및 후세에서 활용되어 국부와 민생에 도움되기를 열망한 것이 『오주연문장전산고』를 관류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 박학시대에 각기 처한 위치에서 기록을 통해 경제의식을 발현시킨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차기체 필기의 함의와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지닌 차기체 필기의 특징에 대해 소략하나마 분석하였다.

필자는 먼저 차기체 필기가 유구한 전통의 箭記와 筆記가 결합된 개념임을 먼저 제기하여 용어가 지닌 생소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차기체 필기는 청조 고증학의 영향과 18, 19세기의 명·청 서적의 대량수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차기체 필기의 활용이 조선후기의 학술담론이 비평과 고증의 분위기가 강해진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전통의 필기와 차기체 필기가 구별되는 지점임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차기체 필기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독서차기, 견문차기, 고증차기로 구별하기를 제안하였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려면 한 권의 필기 전체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고단한 작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전통의 필기가 내용의 성격을 간과하다보니 매우 모호하고 난해하게 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필기가 차기체 필기로 분류되려면 하나의 서적에서 차기체 필기로 분류할 만한 요소가 지배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과 저자의 태도가 새로운 정보의 수용 및 비평에 중심을 둘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변증설이 차기체 필기를 활용한 저술임에 분명하고, 청조 고증학이 채택한 귀납적·분석적 방식을 잘 따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세부적으로 독서차기, 견문차기에 해당하는 편도 있지만, 고증차기의 측면이 월등히 많음을 논증하였다.

이어 고증차기의 한 예로 「裝潢·裝池辨證說」을 분석하여 오주가 어떻게 자료를 인용·나열하여 변증을 하는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오주가 짧은 한 편의 변증설에서 기존의 개념과 상식을 바로잡으려 15종에 달하는 서적을 인용한 흔적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변증설이

방대한 서적 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의 인용에서 초래된 서술호흡의 약화 및 단절도 있음을 보았거니와 이러한 서술호흡의 문제는 추후 세심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저술단계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매우 난잡한 미완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고려하면 類書와는 성격이 같지 않다. 즉 변증을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어서 편차만 정리하면 완성고가 될 수 있으므로 완성고에 가까운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하나의 정보가 수집되어 차기체 필기로 정착되기까지의 지식정보가 구조화된 점, 수많은 서적을 인용하여 고증과 변증을 거쳐 학술담론이 활성화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기체 필기를 활용한 고증과 변증의 활성화가 조선후기의 필기 장르를 확장시켜 학술비평의 분위기를 산출해낸 것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19세기에 출현한 많은 유서와 필기가 18세기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성장한 저자들의 경세의식 실천의 또 다른 측면임을 지적하였다.

참 고 문 헌

南九萬, 『藥泉集』.

徐有渠, 『金華畊讀記』.

宋時烈, 『宋子大全』.

沈鏗, 『松泉筆譚』.

安鼎福, 『東史綱目』.

王士禎, 『香祖筆記』.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德懋, 『青莊館全書』.

鄭元容, 『袖香編』.

鄭元容, 『鯖菴錄』.

趙在三, 『松南雜識』.

韓元震, 『南塘先生文集』.

『漢語大辭典』.

심재 저, 신익철 외 옮김, 『교감역주 송천필담』. 서울: 보고사, 2009.

벤자민 엘먼 저, 양희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4.

김준형, 「사건의 기록과 한문학 -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 2009.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송지원, 「구라철사금자보」(가람古787-Y55g) 해제.

안대회, 「騷壇千金訣 解題」. 『洌上古典研究』 4, 1991.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_____, 「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폐설」. 『대동한문학』 24, 2006.

_____,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 『동방한문학』 39, 2009.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1984.

조창록, 「楓石 徐有渠의 『金華畊讀記』」, 『한국실학연구』 19, 2010.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6, 2005.

_____,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9, 2007.

국 문 요약

차기체 필기는 筭記와 筆記가 결합된 개념인데, 청조 고증학의 영향, 명·청 서적의 대량 수입과 맥락을 같이하여 18, 19세기에 대두된 양식이다. 차기체 필기의 활용은 조선후기의 학술담론이 비평과 고증의 분위기가 강해진 주요 원인이 된다. 차기체 필기로 분류되려면 하나의 서적에서 차기체 필기로 분류할 만한 요소가 지배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고 저자의 태도가 새로운 정보의 수용 및 비평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차기체 필기를 활용한 저술이고, 청조 고증학이 채택한 귀납적·분석적 방식을 잘 따르고 있다. 나아가 세부적으로 독서차기, 견문차기에 해당하는 편도 있지만, 고증차기의 측면이 월등히 많다. 고증차기의 한 예로 「裝潢裝池辨證說」을 보면, 이규경은 짧은 한 편의 변증설에서 기존의 개념과 상식을 바로잡으려 15종에 달하는 서적을 인용하였다. 이는 방대한 서적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은 하나의 정보가 수집되어 차기체 필기로 정착되기까지의 지식정보가 구조화된 점, 수많은 서적을 인용하여 고증과 변증을 거쳐 학술담론이 활성화된 점, 고증과 변증의 활성화를 통해 필기 장르를 확장시켜 학술비평의 분위기를 산출해낸 점, 18세기와는 달리 19세기의 분위기에서 출현한 많은 유서와 필기는 저자들의 경세의식의 또 다른 실천임을 지적할 수 있다.

투고일 2010. 7. 5.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6.

주제어(keyword) 필기(Pilgi), 차기(Chagi), 이규경(Yi Kyu-kyeong), 오주연문장전산고(*Oju-Yeonmunjangjeon-Sango*), 변증(dialectic)